

KCC, 실적부진 불구 수익성 양호

한화증권, 자동차용 도료 단가 하락으로 부진 ... 수용성 도료 성장기대

한화증권은 8월16일 KCC에 대해 2/4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가 29만6000원을 유지했다.

이광훈 연구원은 “2004년 이래 진행된 건축경기 침체와 자동차업계 수익성 악화로 자동차용 도료 납품단가가 하락하면서 2/4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 등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부진은 2/4분기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보수적으로 적용된 데 따른 것으로 주수요산업의 업황 부진을 감안해 공표상 영업이익을 낮추려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훈 연구원은 “건축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익창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며 기아자동차로의 도료 공급 개시와 환경친화형 수용성 도료 생산 등 중기성장 모색도 기대를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8/16>